



학생들 사이에 퍼지는 다단계 판매 권유에 주의 !

사 례

대학 동아리 친구가 '가입하면 인맥을 넓힐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권유해서 회사 담당자와 만났다.

'가입해서 회원을 늘리면 장래에 본인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말에 끌렸고 장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도 있어서 흥미를 가졌으나, 가입하려면 50만엔 가량의 자산 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이라서 살 수 없다'고 거절했는데, '대부 업체에서 나이와 직업을 위조해서 빌리면 된다'고 가르쳐줘서 대부를 받아 지불했다.

이 회사는 사람을 소개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이어지면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모양으로, 같은 방법으로 권유를 받은 지인이 수상한 회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액이기도해서 해약하고 싶다.

(당사자 : 19세 남성)



한 마 디 조 언

- 취직난 등으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맥이 넓어진다', '돈을 벌 수 있다'며 자산 운용 소프트웨어 및 비즈니스 강좌 등의 계약을 맺게하는 수법에 의한 피해 상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 친구나 SNS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권유받아 타인에게 소개해 상품 구입으로 이어지면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수법이 특징입니다.

- 친구의 권유라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또한, 자신의 친구에게 권유함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 대부 업체 등으로부터 대부를 받게 해 대금을 지불하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안이하게 대부를 받으면 다중 채무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곤경에 처했을 때는 관할 지자체의 소비자 생활 센터 등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さぼーとくん

